

올해 서울지역 학생 수 '78만명'... 4년 새 10만명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학급편성 결과' 2022년 이후 매년 감소세 보여 초·중·고 학생, 전체 감소 59% 차지 맞춤형 교육 위한 학급 수 유지



/유투이미지

서울지역 학생 수가 4년 새 10만명 가까이 줄며 학령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서울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2022년보다 9만8266명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폭보다 학급 수 감소폭을 낮게 유지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3.0명으로 줄였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유치원·초·중·고 특수학교·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전체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지난해 81만408명보다 2만8304명(3.5%) 감소했다. 2022년 88만370명과 비교하면 9만8266명(11.2%) 줄어 사실상 4년 만에 10만명 가까운 학생이 감소한 셈이다.

서울 학생 수는 202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85만5309명, 2024년 83만5084명, 2025년 81만408명에 이어 올해 80만명선도 무너졌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조 변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4만539명에서 올해 32만3802명으로 1만6737명 줄었다. 전체 감소 인원의 59%가량이 초등학교 감소분에 해당한다. 2022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학생 수는 39만3565명에서 32만3802명으로 6만9763명 감소했다. 감소율은 17.7%에 달한다. 저

출생의 영향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올해 전체 학급 수는 3만7294학급으로 지난해보다 803학급 줄었다. 감소율은 2.1%로 학생 수 감소율(3.5%)보다 낮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단순히 학급을 줄이는 대신 교육과정 운영 안정성과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고려해 학급 수를 적극적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운영은 학급당 학생 수 감소로 이어졌다. 초·중·고 전체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23.3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줄었다.

특히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8명으로 지난해보다 0.5명 감소했다. 2022년 22.4명과 비교하면 1.6명이 줄어 7.1% 감소했다. 중학교도 25.9명에서 25.6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고등학교는 24.7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2년 23.6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한 수치로, 고교 단계에서는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 감소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지역 학교 수는 총 2092개교로 지난해보다 15개교 줄었다.

감소분 대부분은 유치원이었다. 유치원은 지난해 740개원에서 올해 724개원으로 16개원이 감소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64개원이 줄어든 규모다. 원아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유치원 통폐합과 운영 조정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 수 편차 심화, 교원 정원 감축이라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도 학급 수 감소를 최소화해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했다"며 "학생 수 증장기 추세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상명대, 中 하북과기대와 디자인 교육 확대

15년 넘게 국제 교육협의 이어와 디자인 분야 공동교육 기반 다져 학생교류 확대 등 협력 폭 넓혀



(왼쪽부터)김종희 상명대 총장, 중국 하북과기대 총장 이철근 /상명대

상명대학교가 중국 대학과 10년 넘게 이어온 디자인 분야 국제 공동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교류와 실무 중심 교육 협력을 확대한다.

7일 상명대에 따르면, 김종희 총장 일행이 지난 5일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 하북과기대학교를 방문해 양교의 디자인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상명대와 하북과기대의 협력은 2009년 상명대와 자매결연 및 복수학위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2013년 산업디자인공학 석사과정 공동 운영으로 시작됐다. 이후 양교는 제품디자인 학사과정까지 협력 범위

를 넓히며 디자인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 기반을 다져왔다.

양교가 운영 중인 중의합작관학은 중국 현지 대학에서 해외 대학의 교육과정을 함

께 운영하는 국제 교육협력 모델이다. 중국 교육부 인가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자국 내에서 해외 대학의 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기존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양교는 학생 교류 확대, 교육과정 개선, 실무형 디자인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김종희 총장은 "하북과기대와의 협력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 온 장기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자인 분야 공동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과 현장 역량을 함께 갖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최대 9만원 환급

30일권 사용자 대상 페이백 제공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돌려주는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

서울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까지 사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신청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환급 대상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김포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에 거주하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까지 사용한 경우 카드 종류와 권종에 관계없이 월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3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경우 총 9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 실물 카드와 모바일카드, 후불형 카드 모두 적

용되며 일반권, 청년권, 청소년권, 다자녀 부모권, 저소득층 권종은 물론 따릉이와 한강버스 이용이 포함된 권종도 동일하게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6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 실적에 관종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용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후불형 이용자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도 서울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충전 후 만기 사용을 하지 않고 환불받은 이용자와 단기간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마가입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현진 기자

"퇴촌토마토거리축제"서 여름 즐기세요

광주시, 오는 19일부터 3일간 열려

광주시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퇴촌 토마토거리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퇴촌면 광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4화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퇴촌 토마토를 주제로 공연과 체험,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결합한 참여형 축제로 마련된다.

퇴촌토마토거리축제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장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오랜 기간 수도권 대표 농촌축제로 자리 잡으며 퇴촌 토마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

올해 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차별화를 꾀했다. 행사장에는 야외 워터 슬라이드 수영장이 운영되며, 열음 속에 숨겨진 호박밭을 찾는 '아이스 호박밭 헌터' 프로그램도 마련돼 무더위를 식히며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신선한 토마토와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생산자와 직접 소통하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판로 확대와 브랜드 홍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축제가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는 관람객 편의를 위한 안내 시설이 운영되며, 주차장과 교통 안내도 현장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관리와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문화재단 관계자는 "퇴촌토마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를 준비했다"며 "농업과 관광,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1 | 해질 / 19:52

6월 8일 (월) 음력 : 4월 23일

수도권 날씨 17~2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4/25, 동두천 15/25, 가평 15/25, 양평 16/26, 용인 17/25, 평택 16/25, 파주 15/26, 인천 16/24, 수원 17/25, 서울 17/27, 백령도 14/2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미군, 호르무즈서 이란 드론 2대 추가 격추 /사진 뉴시스

▲미 오하이오주 톨레도 주말 축제에서 총격사건... 여러 명 다쳐

▲日, 아세안 석유비축 지원 올여름 조사 개시... '최우선국'에 필리핀

▲시진핑 최측근 차이치 중앙당교 교장 검임... "2인자로 위상 높아져"

▲이란 외무부, 美의 레이더 시설 공격은 "휴전 합의 위반"

▲美헤그세스, 프랑스 노르망디 방문해 "유럽, 재래식 방위 먼저 책임져야"